



사령탑 김보경(왼쪽 끝)이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홍명보자선축구'에서 서현숙에게 마치 프리킥을 하듯 볼을 건네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정종 | 김진환 기자 kwangshin@donga.com

기쁘다! '태극산타' 오셨네 훈훈했던 홍명보 자선축구

홍명보 감독, 청년들에게 희망 메시지

“잊지 마! 당신은 어머니의 자부심!” ‘청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연말연시 최고의 축구 이벤트가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열리는 자선경기다. 일명 ‘홍명보 자선축구’로 불리는 ‘주식회사 건영과 함께 하는 세이더드림풋볼매치 2015’가 4500여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풋살 형태의 메인 이벤트 초반부, 출전선수들이 만든 골 세리머니 글귀에 행사의 취지가 잘 담겨있었다. 유니폼을 들어올리자 드러난 언더셔츠에 새긴 문구는 짧지만 강렬했다. ‘어머니의 자부심’, ‘청춘의 꿈’은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자선축구의 핵심 테마였다.

현역 시절 술한 감동을 안겼고, 2012런던을 립픽 동메달 신화를 작성했음에도 2014브라질 월드컵을 끝으로 잠시 현장을 떠나야 했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인’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청년실업’이었다. 대회를 주최한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매년 자선경기마다 적절한 메시지를 던진 홍 감독은 내년 시즌 중국 항저우 그린타운 지휘봉을 잡으면서 올해 행사의 화두로 ‘청년실업 해소’를 들었다. 홍 감독은 “청년의 꿈은 대한민국의 설계도”란 말이 있다. 현실은 고달프지만 끊임 없이 노력하면 맑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번 경기를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이 무렵, 참가선수들을 모으는 것조차 버거웠던 과거와 달리 서로 함께 하려는 ‘태극산타들’과 추운 날씨에도 체육관을 찾은 팬들 덕분에 ‘사랑 나눔’은 올해도 대풍년이었다. 이날 희망팀이 사령탑을 13~12로 제압했고, 최우수선수(MVP)로 이승우(FC바르셀로나)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한국축구는 장충벌의 희망 채우기로 아름답게 저물어갔다.

▶태극산타들의 ‘몸개고’ 2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아이언맨’ 김현수, 전설의 별명 대물림

볼티모어, 이상 칼 립켄 주니어와 똑같은 닉네임 선사 ‘대대적 홍보’

두켓 단장 “한국에서 온 칼 립켄 주니어”
내일 볼티모어 입단 국내 공식 기자회견

볼티모어 오리올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이 팀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칼 립켄 주니어(55)다. 그를 상징하는 단어는 ‘2632연속경기 출장’이다. 1982년 5월 31일부터 1998년 9월 20일까지 한 경기도 쉬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실력뿐만 아니라 불굴의 투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도전할 수 없는 위대한 기록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앞으로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수(27)가 ‘칼 립켄 주니어’의 팀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었다. 2년간 700만달러의 조건이다. KBO리그 FA(프리에이전트)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새 역사를 썼다. 그러자 볼티모어 구단은 미국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별명을 붙여주며 벌써부터 김현수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시작했다. 바로 칼 립켄 주니어를 상징하는 ‘아이언맨(iron man·철인)’이다. 볼티모어에선 ‘아이언맨’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한다. 더 이상의 칭찬과 수식은 없다.

볼티모어 덴 두켓 단장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김현수의 입단식에서 등번호 2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혀준 뒤 “김현수는 한국에서 전체 경기의 98%에 나섰다. 이런 내구성은 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고 소개했다. 오랫동안 한국선수는 물론 김현수를 관찰해온 그는 “한국에서의 별명이 아이언맨이다. 볼티모어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칼 립켄 주니어와 닮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볼티모어 입단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현수는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데 대해 “한국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김현수가 이제 두산 맨이 아닌 볼티모어 소속 메이저리거의 신분으로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다. 김현수의 강철체력은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붙은 별명인 것 같은데 호평은 기분이 좋다”며 “미국에서도 주전 경쟁을 잘해서 그만큼 많은 경기에 출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갈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한국으로) 올 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왔다”며 웃었다.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해 2006년 신고선수(현 육성선수)로 두산에 가까스로 입단한 뒤 빅리그에 진출하는 신화를 쓴 그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약을 잘하게 돼 기분이 좋긴 한데 이제 시작이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많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스프링캠프는 선수들이 모두 합류할 때 정상적으로 합류하겠지만 한국은 추워서 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을 만들고 나면 미국으로 가서 연습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현수가 과연 볼티모어의 기대대로 실력은 물론 매너와 투지까지 두루 갖춘 ‘한국판 칼 립켄 주니어’로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할 수 있을까. 한국 팬들은 물론 볼티모어 팬들도 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현수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로 컨벤션벨라지움에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볼티모어 입단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더 깊은 속내를 밝힐 예정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KBS 연예대상’ 이휘재의 삼세판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제3의 전성기
데뷔 23년 만에 첫 연예대상 감격적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중인 방송인 이휘재(43·사진)가 26일 열린 2015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1992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물레카메라’로 데뷔한 후 23년 만에 처음 맞은 ‘대상’이다.

이휘재는 시상식이 끝나고 ‘슈퍼맨이 돌아왔

다’ 제작진과 함께 방송사 근처에서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삼겹살을 안주로 소주를 마시며 자축했다. 그의 술잔 속에는 지난 23년간 몇 번의 부침을 겪으며 느꼈던 보람과 고초, 도전과 좌절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휘재는 세 번째 찾았은 인생의 기회에서 연예대상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MBC 예능 FD로 활동하다 우연한 기회에 ‘물레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알린 그는 1993~1994년 ‘인생극장’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연발



시상식에서 그가 손에 쥔 건 최우수상이었다. 두 번째 전성기는 KBS 2TV ‘상상플러스’를 통해 찾아왔다. 2004년 11월부터 프로그램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하며 시즌1을 책임졌다. 동시에 K

BS 2TV ‘스펀지’를 진행하며 정보전달 면에서도 탁월한 진행 실력을 뽐냈다. 그러나 연말시상식 대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멀기만 했다.

2013년 초 쌍둥이 아들을 얻고 인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해부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인간 이휘재’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고, KBS 2TV ‘비타민’ 진행을 맡으며 ‘방송인 이휘재’로 다시 강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휘재는 26일 대상 수상 후 “10년 전부터 제깍깍으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았다”고 말할 정도로 대상 수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2년 12월 ‘스펀지’ 폐지로 심리적 타격이 컸던 터였다. 그는 지난해 초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스펀지” 폐지 이후 슬럼프를 겪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휘재가 2015년 연예대상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 형일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남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육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든다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1588-3346,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리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뉴맨
등록번호가제2015-서울서초-1790호

중국지사 T. 0433-286-5031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 본 제품은 의료가 아닙니다.

개폐장치

본드본드 링이 아닌 본드본드 링으로 만들어진 링입니다.

전선 (약 700가우스)

후면 3mm의 얇은 본체에 특강기능으로 강을 내장

본체 (소인)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제 10-0756243 호

당신의 사이즈 뉴맨 추천 제작

당신의 사이즈	뉴맨 추천 제작
6.50~8	1호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0cm	주문 제작